

#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32호 (2017-03)  
발행일 2017. 03. 27.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sup>1)</sup>



변수정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

- 가족 형태의 다양화 속에 출현한 비혼 동거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을 위해 우선 비혼 동거 인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 비혼 동거 인구는 우리 사회가 동거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 동거 관계 사이에 계약이나 각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동거 관계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임.
-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비혼 동거 인구 관련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앞으로 동거 관계 등록과 같은 기초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 들어가며

- 한국 사회 가족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비혼 동거 가족과 같이 가족 형성의 시작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과 차이를 보이는 가족이 출현함.
-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포함하는 등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편견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을 과제로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정책에 반영하고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1) '변수정 등(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본고에 제시된 모든 표는 위 보고서에서 발췌, 수정한 표임.

■ 현재 동거 관련 통계나 연구가 부족해 비혼 동거 인구의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 비혼 동거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과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함.
- 이에 비혼 동거 인구의 동거 선택 이유, 동거 생활 중 경험 또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등을 알아보고자 함.

## 2. 비혼 동거 선택의 동기와 동거 관련 경험

### 가. 분석 대상

■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실시한 ‘비혼 동거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함.

- 현재 동거 가족에 대한 모집단이 없어 대표성 있는 표본 설계는 어려움.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에서 스크리닝 문항들(screening questions)을 거쳐 결혼 경험이 없는 만 18~49세 중 현재 이성과 동거 중인 사람 또는 2000년 이후에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253명 중 46.2%는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이고, 나머지 53.8%는 동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현재는 동거인과 헤어진 경험자 36%,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한 경험자 17.8%)임.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60%, 여성이 40%의 비율을 보임. 조사 응답자의 연령을 만 18~49세로 제한한 본 조사에서 동거 시작 평균 연령은 만 29.3세로 나타남.

### 나. 동거 선택의 동기

■ 동거 선택의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 의지할 상대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주거 비용 및 생활비 절약을 위해,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표 1〉 동거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53)	
임신해서	4.0	(10)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 49.4(125)
혼인 의사가 있지만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24.1	(61)	
혼인 의사가 있지만 집안의 반대 등으로	4.0	(10)	
혼인 전에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17.4	(44)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 50.6(128)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13.0	(33)	
혼인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의지하며 같이 지내고 싶어서	19.0	(48)	
이성 교제 중 데이트 비용, 방값 및 생활비 절약을 위해	18.6	(47)	

주: 반올림 수치이므로 비율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유와 형태가 다양화된 현대의 동거는 ① 결혼의 서막( Prelude to marriage), 시험적 결혼(a trial marriage),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 그리고 결혼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결혼 의도는 있는 동거 등을 포함하는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와 ②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과 관계없이 하는 동거를 묶어 결혼의 대안으로서의(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동거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로 구분할 수 있음.<sup>2)</sup>
-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본 조사의 동거 선택 이유에 대한 결과를 결혼 의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음.
  -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 전체 응답자 중 49.4%) 혼인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 전에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임신해서,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집안의 반대 등으로 동거 선택.
  -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 전체 응답자 중 50.6%)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이성 교제 중 방값·생활비 절약을 위해, 상대와 의지하며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동거 선택.

**다. 동거 관련 경험**

■ 동거 사실 공개

- 동거 사실 공개 비율을 보면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6.9%, 가족, 친구, 동료 등 일부에게 공개한 비율은 66.8%, 모두에게 공개한 경우는 6.3%에 그침.

**〈표 2〉 동거 사실 공개 대상**

(단위: %, 명)

전혀 공개하지 않음	일부에게 공개	모두에게 공개	계	(명)
26.9	66.8	6.3	100.0	(253)

-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중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 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237)
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13.9	(33)
부모, 가족 및 주변의 우려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35.4	(84)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볼까 봐	48.5	(115)
기타	2.1	(5)

자료: 반올림 수치이므로 비율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기타 의견은 ‘굳이 공개할 이유 없음’, ‘서로에 대한 배려’, ‘특별한 이유 없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음’임.

2) Hiekel, N., Liefbroer, A. C., & Poortman, A-R.(2014). Understanding diversity in the meaning of cohabitation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 391-410.  
 Rindfuss, R. R., & VandenHeuvel, A.(1990). Cohabitation: A precursor to marriage or an alternative to being sing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4), 703-726.

### ■ 인식적·제도적 차별 경험

- 타인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1%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보다 약간 높은 반면,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타인으로부터의 인식적 차별 경험 여부	51.0	49.0	100.0	(253)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 경험 여부	45.1	54.9	100.0	(253)

- 인식적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51%, 129명) 경우 차별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을 느꼈던 경험 또는 불륜으로 간주하거나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보는 등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경험과 동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편견 등이 언급됨.

### ■ 우리 사회의 동거에 대한 호의 정도

- ‘우리 사회가 동거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8.6%는 ‘호의적이지 않다(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37.2%,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51.4%)’, 11.5%는 ‘호의적이다(약간 호의적임 9.9%, 매우 호의적임 1.6%)’라고 답함.

〈표 5〉 동거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호의 정도

(단위: %, 명)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이지 않음	약간 호의적임	매우 호의적임	계	(명)
37.2	51.4	9.9	1.6	100.0	(253)

주: 반올림 수치이므로 비율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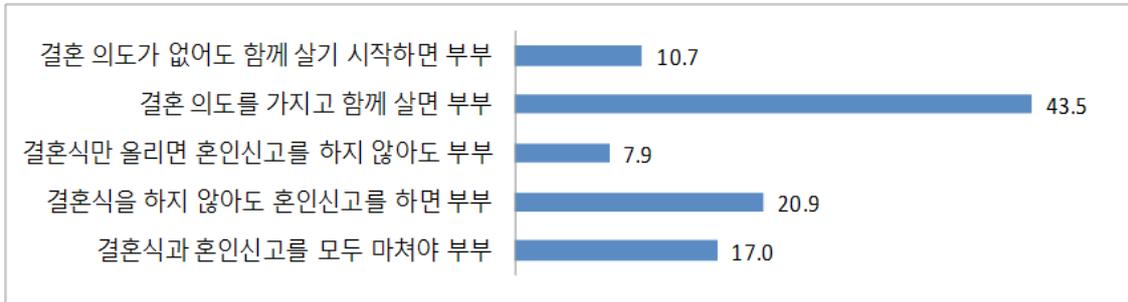
## 3. 혼인 및 가족 가치관

### ■ ‘부부의 기준’에 대한 생각

- ‘결혼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부부’로 본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비율(43.5%)을 보임.
-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62.1%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1〉 '남녀가 부부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

(단위: %)



■ 혼인신고의 필요성

○ 조사 참여자 중 혼인신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207명)에게 동거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44.4%는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함.

〈표 6〉 혼인신고 필요성

(단위: %, 명)

혼인신고 불필요	혼인신고 필요	계	(명)
55.6	44.4	100.0	(207)

■ 혼인신고 계획

○ 동거 경험자를 제외하고 현재 동거 중인 응답자(117명)만을 대상으로 향후 혼인신고 계획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77.4%가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표 7〉 혼인신고 계획

(단위: %, 명)

없다	있다	계	(명)
25.6	74.4	100.0	(117)

○ '혼인신고 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74.4%의 응답자(87명)를 대상으로 그 시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자녀를 임신·출산했을 때',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 혼인신고 계획 시기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전체	100.0	(87)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49.4	(43)
자녀를 임신·출산했을 때	29.9	(26)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17.2	(15)
결혼식 후에	3.5	(3)

#### ■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 결혼을 함에 따라 경험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는 명절, 제사, 가족 모임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하는 문화'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음.
  -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와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를 묶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분류해 보면 응답자의 72.4%가 가족문화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우리나라 '가족문화'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당연히 있어야 할 문화이다	불편하지만 유지해야 한다	불편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계	(명)
27.7	43.9	28.5	100.0	(253)

주: 반올림 수치이므로 비율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음.

## 4. 동거 관련 제도의 필요성

#### ■ 동거 관계 계약서나 각서 등의 필요성

- 동거 관계에서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1.5%는 '필요하지 않다(전혀 불필요 13.0%, 약간 불필요 28.5%)', 58.5%는 '필요하다(약간 필요 46.6%, 매우 필요 11.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해야 할 필요성

(단위: %, 명)

불필요		필요		계	(명)
전혀 불필요	약간 불필요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3.0	28.5	46.6	11.9	100.0	(253)

#### ■ 동거 관계 계약서나 각서 작성 경험

- 실제로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 253명 중 30.4%가 '있다'고 답한 반면 69.6%는 '없다'고 답함.

〈표 11〉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한 경험 여부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명)
30.4	69.6	100.0	(253)

■ 동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인정받는 등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마련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8%는 ‘반대(매우 반대 5.5%, 약간 반대 22.5%)’의 입장을 나타냈고, 72.0%는 ‘찬성(약간 찬성 52.2%, 매우 찬성 19.8%)’의 입장을 보임.

〈표 12〉 동거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반대		찬성		계	(명)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5.5	22.5	52.2	19.8	100.0	(253)

## 5. 나가며

- 동거 선택의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혼인제도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의지하며 지내기 위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국외의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동거 이유를 결혼 의도에 따라 ①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와 ②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로 나눌 수 있었음.
-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동거 사실에 대한 공개가 자유롭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사 응답자 다수가 타인으로부터 인식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동거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동거 시 계약이나 각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동거 관계 보호에 대한 요구를 엿볼 수 있음.
  - 앞으로 동거와 관련된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비혼 동거 인구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및 세부적인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집필자 변수정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3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